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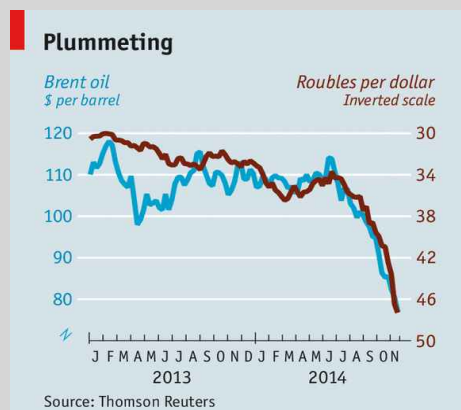
외신 동향

□ Russia's wounded economy (Economist 14.11.22)

○ 최근 러시아 경제 위기에 대한 우려감이 빠르게 확산

- 물가상승과 불황이 겹치면서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심화되는 등 **과거 2차례의 경제위기(80년대 후반, '98년) 상황과 유사하다**는 지적
 - * 러시아 중앙은행은 향후 2년간 ‘제로 성장’을 예고한 가운데, ‘14년 연말 물가 상승률은 9%에 달할 것으로 예상 (9월 CPI는 8.0%로 3년來 최고 수준)
- 최근 **유가의 급락**으로 수출의 **3분의 2 이상을 에너지산업에 의존**하는 러시아는 큰 타격
 - * 올 초 배럴당 평균 \$110 수준이었던 브렌트유 가격은 최근 \$80로 급락
- **루블화 가치**도 지난 3개월 동안 23%이상 폭락하며 **인플레이션을 유발** 중
- 또한 경제제재로 인한 은행 및 기업들의 대외 자본시장 진입제약으로 자금조달 검색

동반 추락하는 유가와 루블화 (The end of the line)



- 유가와 루블화는 비슷한 추세를 보이며 최근 급격한 동반 하락
- 기업과 가계가 루블화를 팔고 달러 등 “hard currency”를 매입하고 있으며, 이는 루블화 급락 방어를 위한 중앙은행의 외환보유고 감소를 유발
- 러시아 중앙은행은 11월 공식적으로 완전 자유변동환율제를 선언

○ 러시아 경제 위기의 주요 원인 분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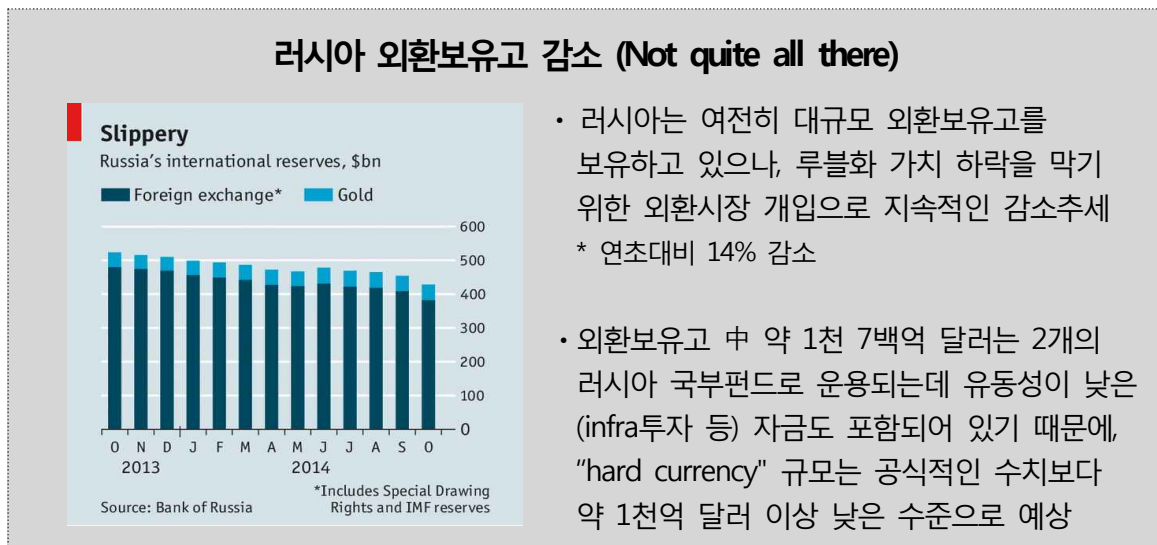
① 최대 리스크 요인은 유가하락

- 세계경제의 더딘 회복으로 **글로벌수요가 악화**되면서 **유가하락**은 더욱 심화 될 것으로 예상
 - * 美 정부기관은 ‘15년 배럴당 평균 \$83수준을 기록 할 것으로 전망하며 이는 러시아의 경기침체를 피하기 위한 최저수준인 \$90달러를 하회

② 러시아 기업들의 외채 상환 압력도 고조

- 기업의 외채규모는 현재 5천억 달러 이상이고 이중 1천 300억 달러는 '15년 내 만기 도래
- 부실채권(NPL)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루블화의 약세가 채무부담을 더욱 가중

③ 러시아 중앙은행의 외환보유액도 최근 지속적으로 감소



④ 푸틴 대통령의 외교정책 및 정치적 움직임 또한 중요한 변수

- 서방의 제재가 강화되면서 이에 따른 러시아 은행의 국제 자금업무 및 원유 수출 금지 제재 등으로 러시아 경제가 직격탄을 맞음
 - 서방의 압력이 거세질수록 농산물 수입 금지조치 행정명령 등 러시아도 보복 제재에 나서면서 정치·경제적 갈등이 증폭
- 서방 국가들의 경제제재 심화, 추가적인 유가하락 그리고 기업의 부채조정 실패 여부 등이 추후 러시아 경제의 디폴트 가능성을 가늠하는 주요한 요인이 될 것

정부의 지원 등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은행, 기업들의 디폴트 가능성이 크게 높지 않지만, 대외요건 악화 및 돌발변수 출현 등으로 자본유출과 통화절화 압력이 더욱 거세지면 장기적인 지원에도 한계가 있음

⇒ 이는 러시아 경제 뿐 아니라 교역 상대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, 브라질 등 원자재 수출신흥국에 대한 위험회피 성향 강화로 전이되어 향후 세계경제에 잠재적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우려